코로나19 난리통에도 음주운전 '여전'

작년 도내 음주운전 1711건 적발… 12월 가장 많아
음주 교통사고 늘어… 연말연시 앞두고 특별 단속

음주운전 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제주지역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송년회 등 잦은 술자리로 인해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연말 음주운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711건 중 12월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선 11월 말까지 1104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1523건) 대비 약 10.98% 감소했으나, 여전히 매달 평균 100여건 이상 적발되는 등 음주운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 중순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257건)는 오히려 전년 동기간(201건) 대비 27.86% 늘어났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엔 296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8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018년엔 322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551명이 다쳤다. 2017년엔 319건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49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과 코로나19 여파로 해마다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주 단속이 줄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주자치경찰은 시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오후 8시~10시까지 야간 2개팀이 2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방식으로 음주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또한 모든 단속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이 보일 수 있도록 매일 2시간 동안 8개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야간 주취 보행자 도로 누움·무단횡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야간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순찰도 강화한다. 차량 별·도로 별 순찰 선을 지정해 오후 10시~오전 2시, 오전 5시~7시까지 순찰을 벌일 계획이다. 실제 올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14건이 오후 10시~오전 7시 사이에 발생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초가 집줄놓기 2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초가에 새로 이을 집줄놓기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불법 조업 어선 집중 단속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 조업을 일삼는 어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저인망 트롤 방식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조업 ▷허가 외 어구 사용·사용 금지된 어구 적재 ▷불법조업 단속 대비 선명 은폐 후 조업 ▷그물코 규정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제주해경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어두운 밤에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할 경우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은 오는 7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강다혜기자

고양시 확진자 4명 확진전 제주여행

서울 확진자 일행 9명도 양성
확진자 다녀간 7곳 동선 공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 A씨와 일행 3명이 지난달 24~26일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일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도에 따르면 확진 전 제주를 찾았던 이들은 지난 1일 고양시 소재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고 일행 전원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 29일 제주 82번 확진자와 동행한 인천지역 거주자 B씨가 2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역학조사 및 추가 동행자 2명에 대한 조사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일행 2명은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다.

지난달 23~26일 3박4일 동안 제주를 방문했던 서울시 확진자 C씨의 일행 9명 전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7곳의 동선을 추가로 공개하고, 관련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동선은 ▷제주동문시장(11월 23일 오후 5시~5시 30분) ▷산방산(24일 오후 3시~4시) ▷거문오름(25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산굼부리(25일 오전 10시 41분~11시 50분) ▷섭지코지(25일 오후 2시 30분~4시) ▷성산일출봉(25일 오후 4시 15분~5시 30분) ▷제주국제공항 면세점(26일 오전 9시 37분~9시 51분) 등 7곳이다. 백금탁·이태윤기자

도민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감작률 높아

제주대 환경보건센터 조사

제주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성인들이 유입 인구에 비해 삼나무 화분(꽃가루)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강주완) 연구팀이 2019~2020년 추적 연구 조사 결과다.

환경보건센터는 앞서 2016년 성인 대상 연구에서 삼나무 화분 노출 기간이 꽃가루 알레르기 감작(민감 상태로 만드는 일)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약 2.5년 이상 제주에 거주한 경우 이러한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기존 결과가 단면조사연구에 의한 것이라는 제한점이 있어 성인 대상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감작과 거주 기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2019년부터 4년간의 추적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1차년도 연구 결과 일본삼나무 감작률은 제주에 거주했던 성인(제주도민)이 제주에 유입된 성인(제주 유입 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2차년도 연구에서도 제주도민이 제주 유입 인구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감작률이 높았다.

환경보건센터 측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온 다습한 제주도의 기후환경이 삼나무 화분 농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향후 2년간의 추적관찰을 통해 삼나무 노출기간과 감작률의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진선희기자

제주자치경찰 존치… 국가경찰 이원화 유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
소속 도지사→자치경찰위로

제주자치경찰이 현행 국가경찰과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현행 도지사 소속이 아닌 제주자치경찰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돼 제주자치경찰의 조직·예산을 담당하는 도의 지휘감독 권한 축소가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면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을 기본적으로 일원화 모델로 운영하되, 2006년부터 운영돼온 제주자치경찰은 현행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외청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개정안은 각 시·도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자치경찰 사무 중 수사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제주자치경찰도 이에 따라 도지사 소속에서 제주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변경된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는 지자체장의 단독 지휘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도의 운영 주체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으로 하고 시도의회 추천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해당 시도교육감 추천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추천위원회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 3년의 단임제로 규정했다.

자치경찰사무는 방범순찰 등의 주민 생활안전 사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의 교통활동 사무, 지역내 다중운집 행사의 교통 및 안전관리 사무, 학교폭력 및 아동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색 등 수사사무로 규정했다. 일선경찰관들이 우려했던 주취자 보호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복지 일환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됐다.

이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만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성폭행 혐의 20대 무죄 뒤집고 2심서 실형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25일 오전 5시쯤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유죄로 보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통해 당시 상황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묘사된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으며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이상민기자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몬(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어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귤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